

월요논단



김 성 은
제주도국제관계대사·전 뭍바이 총영사

인도에서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는 단연코 크리켓이다. “크리켓을 모르면 인도를 모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크리켓은 외국산이고, 카바디는 국산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켓이 훨씬 더 인기가 많다.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다면 그곳에서 인도인들이 크리켓을 하고 있는 장면을 쉽게 볼 수가 있다. 크리켓이 축구나 농구 등에 비해 덜 활동적이고, 타인과 경쟁하거나 부딪히는 것을 싫어하는 인도인의 기질과 잘 어울리며, 무엇보다 무더운 날씨에도 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인 것 같다. 인도에서 격투기나 격렬한 운동보다는 요가나 명상, 제조업

인도(印度) 알기 7 : 인도의 스포츠

보다는 IT산업이 발달한 것을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인도에서 크리켓은 그 종주국인 영국이 지배하면서 널리 보급되었으며, 인도 민족주의와 함께 발전했다. 1911년 7월 29일 캘커타(지금의 콜카타)에서 열린 인도 모혼 바칸 클럽과 영국군인들로 구성된 이스트 요크셔 레지먼트간의 게임에서 맨발의 모혼 바칸팀이 군화를 신은 동부 요크셔팀을 물리친 것은 당시 영국의 지배를 받던 인도인들에게 커다란 민족적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다. 크리켓은 계속 발전해 인도는 1983년 크리켓 월드컵에서 우승했으며, 이후 사친 텐드르카와 같은 대스타가 탄생했다. 이런 인기를 배경으로 2008년4월 주로 대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8개 크리켓 팀으로 구성된 인도 프리미어 리그가 탄생했다. IPL은 미국 NBA 다음으로 선수연봉이 높다고 한다. 라이벌인 인도와

파키스탄간 크리켓 경기는 한·일전 이상으로 열기가 뜨거우며, 이따금 칸 파키스탄 총리는 크리켓 국가대표 출신으로 유명하다. 최근 인도 젊은이들에게 축구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2013년에는 ‘인도 수퍼 리그’가 탄생했고, FIFA U-17을 비롯한 각종 국제경기가 인도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다. 필자는 5년 후에 인도 축구가 크리켓에 이어 두 번째로 인기종목으로 확실히 자리잡을 것으로 본다. 이제 우리 기업들도 인도 진출차원에서 크리켓과 더불어 축구에도 적극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인도에서 태동한 카바디는 인도, 파키스탄, 이란, 방글라데시 등에서 발전해 1990년 베이징 아시안 게임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카바디는 힌디어로 “숨을 참는다”는 의미로 일정한 직사각형 공간 안에서 각각 7명씩으로 이루어진 2팀이 통

상 20분간 30초마다 번갈아가며 공격과 방어를 하는데, 공격자(Raider)는 계속하여 카바디를 외치하면서 공격해야한다. 카바디는 크리켓과 축구에 이어 세 번째로 2014년에 프로 리그인 ‘프로 카바디 리그’가 출범했다. PKL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선수들 중 뱀갈 워리스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이상준 선수가 인기가 많다. 이외에도 인도에서는 사실상 인도의 국기(國伎)인 필드하키와 사격, 배드민턴, 레슬링 등이 인기가 많다. 인도는 2008년에야 비로소 사격에서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땀다. 2010년 영연방대회 여자레슬링에서 지타 포갯이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그녀의 이야기가 영화 ‘당갈’로 만들어져 전 세계 흥행을 거둔 바 있다. 지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PV 신두가 배드민턴에서 은메달을 따 인도에 배드민턴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설

여전히 엄중한 상황, 방심하면 안된다

제주도가 황금연휴 기간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목적 양압 검체채취 부스(조스피드 워크스루)도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 갖춰졌습니다. 제주 관문인 공항에서부터 외부감염원에 대한 원천 봉쇄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황금연휴 때 예상보다 많은 관광객이 제주로 몰리면서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이번 황금연휴(4월 29~5월 5일) 일주일간 17만 9000명이 입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데 이런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연휴 첫날인 29일에만 3만6587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석가탄신일(30일)에도 4만명(잠정)이 입도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1일 입도 관광객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이어 주말과 휴일, 그리고 5일 어린이날까지 황금연휴 기간 입도객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사실상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진 관광객들이 대거 제주를 방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제주도의 방역 수용력이 한계에 이를 수 있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가 항공편 예약 등이 한창인 지난 23일 기준으로 입도객 수를 잡으면 서 큰 차이가 난 것입니다. 지난 달 29일만 하더라도 2만5000명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1만2000명이 더 많았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황금연휴를 맞아 국경 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이 한꺼번에 찾으면서 자칫 방역망이 뚫릴 수 있어 걱정입니다. 국내는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들었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의 불씨는 언제든 번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빈틈 없는 방역을 재차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 미래 10년 설계, ‘첫 단추’에 달렸다

제주도가 향후 10년간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 정책의 근간을 세우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환경보전과 개발, 관광객 등으로 어느 때보다 심한 갈등과 몸살을 앓는 지역 현실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달 초 착수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 수립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국토연구원과 2개 업체 컨소시엄, 제주연구원간의 협업연구로 내년 5월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과거 1·2차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 등에 대한 평가후 향후 대응방안 모색과 함께 환경·개발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새 비전이나 전략을 설정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대내·외적 트랜드도 반영됩니다. 핵심은 그간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 전략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합니다.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타운 휴양형주거단지 서귀포관광미항 등 선도 프로젝트가 일부만 성과내고, 대부분 기대이하거나 ‘벽’에 부딪혀 답보상태입니다. 관광객 총량제 도입 여론, 1차산업이자 환경과 공존하는 농업 위기 해소 등도 제주 미래 비전의 한 축으로 주목할 분야입니다. 제주사회가 최근 환경보전과 개발의 가치간 갈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도 큰 화두입니다. 제2공항 건설, 오라관광단지조성사업, 송악산개발사업, 대정해상 풍력단지 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로 도민 갈등이 깊게 패였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른 새 전략으로 ‘환경보전과 도민 삶의 질 제고’란 두개 비전 실현에 맨 우선 초점을 맞춰야 마땅합니다.

열린마당

효도의 진정성



홍 익 준
제주수필아카데미 회원

효도의 의미는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 그리고 부모를 정성껏 잘 모시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공에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효도는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 명심보감에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셨으니 이 두 분이 아니시면 이 몸이 있을쏜가 그 값고 높으신 은혜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라는 글귀가 있다. 그러면 낳으시고 길러주신 고마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바르게 갚는 것인가. 좋은 옷과 음식을 대접하고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이 효도의 완성일까? 이렇게

하는 것도 효도의 일부는 되겠지만, 효도의 완성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공자에게 어느 날 부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까 하고 물었다. 공자는 효도란 사양(飼養)이 아니다. 좋은 음식과 비단옷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의 전부가 아니라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공경하는 것이 효도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처럼 효도의 실천 방법은 지극한 정성과 공경이 반드시 함께해야 진정한 효도가 된다는 것이다. 학생의 입장에서 부모님께 효도를 실천함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속을 태우지 않고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충실 하는 것이 효를 행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세월은 흘러 부모님은 항상 이 세상에 살아계시지 못한다. ‘정철’ 선생의 시구절이 오늘따라 생각난다. “아버이 살아 실제 섬기기를 다 하여/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차별없는 학교 현장 실현하겠다”

이 교육감, 노동절 기념사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5월 1일 제130주년 노동절을 맞아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노동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모습이어야 할 것”이라고 기념사. 이 교육감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지금, 노동의 가치가 더욱 빛나고 있다. 세계가 경탄하는 대한민국의 공공성은 노동자가 이뤄낸 것”이라고 언급. 특히 이 교육감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으로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열겠다”며 “차별이 없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겠다”고 강조. 전선희기자

연휴 산불예방 특별대책

○…제주시는 건조한 날씨에다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연휴기간 고사리 채취객과 관광객 입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형 산불 예방 특별대책을 추진. 주요 으뜸과 등산로에서 화기소

지 금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주요 등산로 주변에 전진 배치.

시 관계자는 “산불취약지역에 공무원 담당지역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산림 인접지역의 쓰레기 소각이나 흡연을 금지해 달라”고 강조. 문미숙기자

서귀포시 도향선 방역 강화

○…서귀포시는 연휴 기간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항만 여객터미널에 대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어 눈길.

점검반은 하루 5회 이상 대합실에 대한 방역소독과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관광객들이 도향선 탑승 전 빠른 발열체크로 총력 대응.

시 관계자는 “지난 29일 기준 우도 도향선 승객 수는 2600여명, 마라·가파도는 2100여명으로 전월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며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 김도영기자

부 고

김동배(력키가방 대표·前 중앙로상가상인회 회장) 부인 진주강씨 애자(향년 76세)께서 서기 2020년 5월 2일 06시 23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0년 5월 5일(화요일)
- ▶발인일시: 2020년 5월 6일(수요일) 오전 9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 ▶장 지: 남국선원

남 편 김 동 배
딸 김 정 미
나 경
소 영

※ 연락처 : 김동배 010-3697-1024
김정미 010-9022-0511
김나경 010-4786-2567
김소영 010-4445-0771

※ 5월 4일 오후 5시부터 조문가능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고공 성휴(향년 88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5월 4일

부 인 홍봉인
아 들 고영호 며느리 전해심
영훈 김연희
딸 고예심 사위 김은형
홍자
영의 김택현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외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동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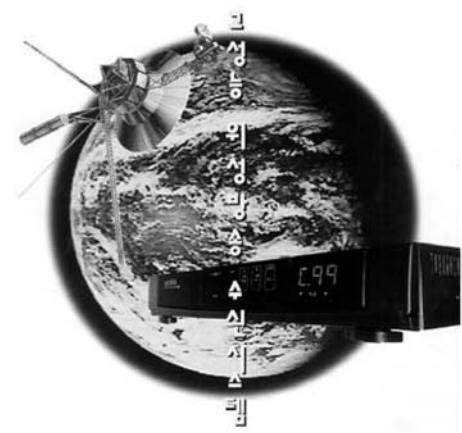
|안전성 확보

-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설(가임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